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0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일 (음력 3월 28일) 목요일

한국노총 전남본부 노동의 숭고한 의미 되새겼다

1일 화순 도곡서 노동절기념대회 행사 치러
근로자 600여명 참여 노동조건 개선 등 촉구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신원의장)는 1일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화순 도곡 원네스&리조트에서 600여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를 가졌다.

기념행사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민수 전남경영자총협회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구충곤 화순군수, 강일원 화순경찰서장,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과 근로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신원 의장은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2대 지침폐기, 성과연봉제 폐기,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일정부문 성과는 있었지만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공약이행은 12%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 개정 주52시간 근로 등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확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민과 함께 외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전남행정부지사는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그 어느 지역본부보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셨고 그 노력에 힘입어 전라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일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전남으로 발전했다면서 전남 근로자들의 노고에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민수 전남경총회장은 축사에서 "한국노총전남본부와 함께 노사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이룩하고 또한 지역의 노사상생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 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노사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난 저울을 교체하여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협력증진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모범 노동자 50여명의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전남경찰청장 표창, 노동청장 표창, 전남경총회장 표창,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최남규 기자

한전공대 '정식 교명 제정' 추진…하반기 '예비총장' 인선

대학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교명 · 대학상징물(UI)' 제정 포함

'(가칭)한전 공과대학(켑코텍 · Kepco Tech)'의 정식 대학 명칭이 상반기 내로 확정된다.

1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인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법인설립시 사용될 '교명'과 '대학 상징물(UI) 디자인' 제정 과업이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대학설립 기본계획에는 건학이념, 학생 · 교직원수, 교과 체계, 재정 마련안, 운영 방향 등이 담긴다.

한전은 교명과 UI가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대학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게 될 '학교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법안이사장 선정, 이사회 구성, 정관, 법인의 자산 범위 등이 확정된다. 또 법인 설립에 맞춰 대학의 과도기적인 업무를 총괄할 '예비총장' 성격의 직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최종 운영 방안을 확정하게 될 '마스터플랜용역'은 캠퍼스 건축설계 안까지 포함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도 · 나주시 · 한전을 포함한 3자간 이행협약 체결로 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전공대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주축으로 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캠퍼스 · 연구시설 · 산학연 클러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0억원~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최근 의회 동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어린이날 휴무로 다음 호 7일자 발행합니다

Photo 漫評

한국당 해산?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0만명을 넘어섰다.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게시판이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선 만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 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2일 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국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역사가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